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9장 원수를 사랑하라

『산상설교』 상권 제29장, 인쇄 378~39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43~48

> ❓ **나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고 왜 그래야 하나요?**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구약 어디에도 그대로 있지 않은 왜곡임을 밝힌다. 이어 가나안 정복 명령과 저주시처럼 '미움'을 허락하는 듯한 구약 구절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사법)으로 읽어야 한다고 답한다. 그다음 긍정적 원칙으로 넘어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말한다. 그 비결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다. 이 사랑은 상대를 친구로 만들려는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는 이 사랑을 축복과 선행과 기도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풀고, 그리스도와 스데반의 본을 보인 뒤, 실패하는 신자에게 십자가의 위로를 건네며 마친다.

📜 절별 정리

📜 1. 본문의 차이와 바리새인의 왜곡

로이드 존스는 이 단락이 율법의 참뜻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왜곡과 대조한 여섯 가지 실례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점부터 짚는다. 44절은 흠정역(KJV)과 개정역(RV)이 다르다. 흠정역에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교리와는 관계없는 세부 사항이라고 본다. 같은 가르침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있으므로 흠정역의 긴 형태를 따라 설교한다고 밝힌다. 이어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넘어간다. “이웃을 사랑하라”와 “원수를 미워하라”가 한 짝으로 묶인 구절은 구약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웃'을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좁혔고,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을 의무이자 권리로, 심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여겼다. 그 결과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보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멸시하는 '칸막이 중간 벽'이 고대 세계를 갈라놓았다. 그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이유도 밝힌다. 바리새인의 잘못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1. 여섯 실례 중 마지막 단락이다
2. 44절 사본 차이는 교리와 무관하다
3. '이웃+원수 미움' 짝은 구약에 없다
4. 바리새인은 이웃을 이스라엘로 좁혔다
5. 이방인 미움을 경건으로 착각했다

마태복음 5:43

바리새인이 가르친 왜곡된 공식을 보여 준다

>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44

예수님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대조가 시작된다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2:14

설교에 쓰인 '칸막이 중간 벽'이라는 표현이 나온 곳이다(정리자 주)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2. 구약의 '미움'은 사법적이다

로이드 존스는 구약에 원수 미움을 부추기는 듯한 진술이 실제로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모리·모압·미디안을 친절히 대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고, 아말렉은 하늘 아래에서 지워져야 했다. 살인자를 피해자의 친척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죽여도 된다는 규정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시편 69편) 같은 저주시다. 그의 답은 하나다. 이 명령들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법적인 것, 곧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 원한을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공격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으로 썼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도 모순이 생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분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45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도 벌하지 않으신다”로 읽는 해석도 틀렸다. 하나님은 가인과 홍수 전 세상, 소돔과 고모라, 반역한 이스라엘을 벌하셨고, 예수님도 최후 심판과 지옥을 가르치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도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궁극적 모순은 없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사법적 원칙을 자기 일상의 감정과 행동에 끌어와, 자기에게 거스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근거로 삼은 데 있다.

1. 구약의 진멸·저주는 하나님의 재판이다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
3. 예수님도 원수 사랑과 화 선언을 함께하셨다
4. 이생의 은혜와 최후 심판은 모순이 아니다
5. 바리새인은 재판 원칙을 사적 미움에 썼다

> **시편 69:23~25**
> 저주시의 대표 예다. 사법적으로 읽어야 할 본문으로 제시된다
>
>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 24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 하소서 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마태복음 23:13

예수님의 화 선언. 원수 사랑과 심판 선언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준다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가복음 9:48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최후 심판이 실재한다는 근거다

>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3:3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선언. 해와 비의 은혜와 나란히 놓인다

>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태복음 5:45

보편구원론으로 오독되는 구절이지만, 실제로는 이생의 은혜를 말한다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3. 하나님처럼 — 자기로부터 초연한 사랑

이제 로이드 존스는 긍정적 가르침으로 넘어간다. 앞의 38~42절이 “되받아치지 말라”는 부정적 형식이었다면, 이 단락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긍정적 형식이다. 두 단락을 지배하는 원칙은 같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다.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십 리를 동행하는 일은 자기에 대해, 자기 이익과 자기 염려에 대해 죽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 원수까지 넣으신다. 이 가르침은 48절의 “온전하라”로 끝나므로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원칙은

않으시고, 전적으로 사심 없는 사랑에 따라 대하신다. 요한복음 3:16의 사랑도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비결은 초연함이다. 남의 행동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예민하고 경계하고 시기한다. 로이드 존스는 하루를 돌아보라고 권한다. 마음에 떠오른 불친절하고 잔인한 생각은 대개 다른 사람이 낳은 것이다.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하는 일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이 지배당하며, 이것이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나라에 속한 새 피조물이므로,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를 자기 안에 가진다.

1. 38~42절은 부정형, 이 단락은 긍정형이다
2. 이웃의 범위에 원수까지 들어간다
3.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신다
4. 남에게서 초연하려면 먼저 자기에게서다
5.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삶을 비참케 한다

> **마태복음 5:39**
> 앞 단락의 부정형 원칙. 되받아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마태복음 5:45**
>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원수 사랑의 모범이자 이유다
>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마태복음 5:48**
> 단락의 결론. 하나님을 닮는 사랑이 목표임을 밝힌다
>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요한복음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 4. 새 눈으로 보기, 그리고 바른 동기

사랑의 새 원리를 가지면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보시되 그것을 사탄의 활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시고, 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두신다.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탄에게 속은 사람, 이 세상 신의 무기력한 희생물, 지옥으로 가는 죄인”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괴로워하는 대신 그를 구하려고 무엇이든 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두 가지 틀린 동기를 물리친다. 첫째는 “내가 잘해 주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히틀러와도 식탁에 마주 앉아 말만 건네면 된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감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용도 없다. 둘째는 현대 심리학의 '가능성' 이론이다. 사람을 현재 상태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대하라는 이 생각은 학교에서 벌을 없애고 감옥에서 죄수를 친절로만 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되묻는다. 사람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어 그것을 키우면 구원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스스로 의로워질 능력이 없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들었느냐”고 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증언하게 된다.

1. 원수를 사탄에게 속은 희생자로 본다
2. 목표는 친구 만들기가 아니다
3. 감상주의 말고 현실주의여야 한다
4. 사람 안에 키울 '신성의 불꽃'은 없다

고린도후서 4:4

'이 세상 신'에게 눈이 가려진 사람. 원수를 보는 새 관점이다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시편 51:5

죄 중에 태어난 인간. 가능성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다

>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린도전서 15:10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증언의 바탕이다

>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요한복음 3:16

사악한 세상을 구원하려 아들을 보내신 사랑. 우리가 따를 방식이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5. 세 가지 실천 — 그리고 '좋아함'과 '사랑'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을 44절의 세 동사로 정리한다. 첫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일상어로 하면 “신랄한 말에 친절한 말로 답하라”는 뜻이다. “내가 그대로 되갚아 줬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간다. 둘째,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악의적 행동에 호의적 행동으로 반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농부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저러는 것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어 가다 보면 그가 불쌍해지고, 마침내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시간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그는 '사랑'과 '좋아함'을 구별한다. 좋아함은 외모, 기질 같은 타고난 것에 좌우되므로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명령할 수 있다. “사랑하되 좋아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신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듯이 대우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1. 신랄한 말에는 친절한 말로 답한다
2. 악의적 행동에는 호의적 행동으로 답한다
3. 박해받는 때가 곧 기도할 때다
4. 좋아함은 명령할 수 없고 사랑은 명령된다
5.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우하는 행동이다

> **마태복음 5:44**
> 축복·선행·기도라는 세 가지 실천 명령이다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마태복음 5:45**
> 반역하는 자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둘째 실천의 모범이다
>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요한일서 5:3**
>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이 감정 아닌 행동임을 보여 준다
>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6. 주님과 사도와 성도의 본보기

로이드 존스는 이 사랑이 신약에서 실제로 살아 낸 것임을 보여 준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물음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답하셨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동족은 지나쳤지만, 전통적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았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죄나 다른 이유로 곤경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다.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행하셨다. 자기를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삶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산상설교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래의 왕국 시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세대주의)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묻는다. 바울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라”고 가르쳤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로이드 존스는 스데반이 그의 주인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역대의 성도들도 같은 영을 드러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1.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웃이다
2.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을 행하셨다
3. 바울은 같은 것을 가르쳤다
4. 스데반은 같은 것을 살아 냈다
5. 산상설교는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

> **누가복음 10:29~37**
> 선한 사마리아 사람. 원수까지 이웃에 포함됨을 보여 준다
>
>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

누가복음 23:34

십자가의 기도. 주님이 원수 사랑을 친히 행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로마서 12:20

사도의 가르침. 산상설교가 교회 시대에도 유효함을 보여 준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도행전 7:60

스데반의 기도. 제자가 주님의 수준에 이른 실례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산상설교는 지금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 7. 정죄감 속의 위로와 부흥의 소망

로이드 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랑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졌으므로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핑계가 없고, 주님께 욕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정죄감을 느낄 청중을 알고 위로를 건넨다.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 곧 나를 구원하려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위로를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을 닮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깨어져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흥이 즉시 임할 것이다.

1. 성령이 주어졌으니 핑계는 없다
2. 해와 비보다 큰 선물은 십자가다
3. 실패해도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4. 위로를 방종의 구실로 삼지 않는다
5.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면 부흥이 온다

> **요한일서 1:9**
> 실패하는 신자에게 주는 용서와 정결의 약속이다
>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한복음 3:16**
> 해와 비를 넘어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더 큰 사랑이다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마태복음 5:45**
>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름이다
>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오해와 반론**

본문비평
여러 고대 사본을 비교해 성경 원문의 가장 정확한 형태를 찾는 연구다.

흠정역·개정역
1611년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과 19세기 말 이를 개정한 영어 성경(Revised Version)이다.

칸막이 중간 벽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적대의 담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저주시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편들(예: 시편 69편)이다.

사법적 원칙
그런 명령과 저주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적 심판이라는 해석 원리다.

일반은총
하나님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해, 비, 수확 같은 삶의 유익을 주시는 은혜다.

초연함
남의 행동이나 내 자존심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안의 새 원리로 반응하는 자유다.

세대주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고, 산상설교를 지금 교회가 아닌 미래 왕국 시대의 법으로 보는 해석이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의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왜곡이다. 구약의 진멸과 저주는 하나님의 사법적 심판으로 읽어야 한다.
- 원수 사랑의 모범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사랑스럽지 않은 세상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심 없는 사랑이다.
- 그 비결은 자기로부터 초연해지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탄에게 속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새 눈이다.
-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축복과 선행과 기도라는 행동이다. 주님과 바울과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으니 산상설교는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
- 우리는 실패하지만 십자가의 용서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랑한다면 부흥이 임할 것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